

다시 부는 명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④

古之爲道者 還有不從凡夫來者耶
고지위도자 환유부종범부래자야
諸經論中 還有不許末世眾生
제경논중 환유불허말세중생
修無漏道乎
수무루도호

由是觀之 不論末法與正法時殊
유시관지 불문말법여정법시수
不憂自心昧之與明 但生仰信之心
불우자심매지여명 단생양신지심
隨分修行 以結正因 速離劫弱
수분수행 이결정인 원리결약
當知世樂非久 正法難聞
당지세락비구 정법난문
豈可因循 虛送人生
豈가인순 허송인생
如思追念 過去久遠已來
여시추념 과거구원이래
虛受一切信心大苦 無有利處
허수일체신심대고 무유이익
現任即有 無量逼迫 未來所苦
현재즉유 무량박박 미래소고
亦無分齊 難捨難離 而不覺知
역무분제 난사난리 이불각지
況此身命 生滅無常 剎那難保
況차신명 생멸무상 찰나난보
是菩薩所行 當知是人 滅佛知見
시보살소행 당지시인 멸불지견
破滅正法 諸有智者 不應如是

여로부터 수도하는 자가 범부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자가 있었던가. 모든 경론 중에 말세 중생에게 출세간의 도 닦기를 허락하지 않은 데가 있던가.

圓覺經云 末世諸眾生 心不生虛妄
원각경문 말세제중생 심생생허망
불설여시인 현세즉보살 화엄론문
佛說如是人 現世即菩薩 華嚴論云
若言此法 非是凡夫境界
약언차법 비시범부경계
是菩薩所行 當知是人 滅佛知見
시보살소행 당지시인 멸불지견
破滅正法 諸有智者 不應如是

이렇게 본다면 말법과 정법의 때가 다를 수 있다. 자기 마음의 어둡고 밝음을 근심하지 말고 단지 신앙의 마음을 내어 연분을 따라 수행함으로써 정인(正因)을 맺고, 겁약한 마음을 멀리해야 한다.

마땅히 알라. 세속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고, 정법은 듣기 어려운데 어찌 하루하루 헛되이 보낼 것인가. 생각해 보면 아득한 과거부터 몸과 마음의 온갖 괴로움을 받아 아무 이익이 없었고, 현재에는 한없는 고통을 받고 있고, 미래에 받을 괴로움 또한 끝 없으나 이를 버리고 멀리하기가 어렵구나.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이런 걸 알고 부지런히 수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실령 수행을 하고 깨달음이 없더라도 선종(善種)을 잃지 아니하여 오하러 내세에 좋은 인연을 쌓고 익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심결>에는 "듣고 믿지 않는다 해도 부처가 될 세인의 인을 맺을 수 있고, 배우고 이루지 못했다 해도 오하러 인연(人天)의 복을 얻는다" 하였다.

김원각 (시인·역경위원)

세속의 즐거움 오래가지 않는데 마음 닦지 않고 늙음 기다리나

과필정법 제유지자 불용여시
과필정법 제유지자 불용여시
不動修行 設行不得 佛失善種
불근수행 설행부득 불실선종
猶成來世積習勝緣 故唯心訣云
유상내세적습승연 고유심결문
聞而不信 尙結佛種之因 學而未成
문이불신 상결불종지인 학이불성
唯蓋人天之福
유개인천지복

이렇게 본다면 말법과 정법의 때가 다를 수 있다. 자기 마음의 어둡고 밝음을 근심하지 말고 단지 신앙의 마음을 내어 연분을 따라 수행함으로써 정인(正因)을 맺고, 겁약한 마음을 멀리해야 한다.

마땅히 알라. 세속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고, 정법은 듣기 어려운데 어찌 하루하루 헛되이 보낼 것인가.

생각해 보면 아득한 과거부터 몸과 마음의 온갖 괴로움을 받아 아무 이익이 없었고, 현재에는 한없는 고통을 받고 있고, 미래에 받을 괴로움 또한 끝 없으나 이를 버리고 멀리하기가 어렵구나.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이런 걸 알고 부지런히 수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실령 수행을 하고 깨달음이 없더라도 선종(善種)을 잃지 아니하여 오하러 내세에 좋은 인연을 쌓고 익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심결>에는 "듣고 믿지 않는다 해도 부처가 될 세인의 인을 맺을 수 있고, 배우고 이루지 못했다 해도 오하러 인연(人天)의 복을 얻는다" 하였다.

김원각 (시인·역경위원)

한 큰 스님과의 대화

고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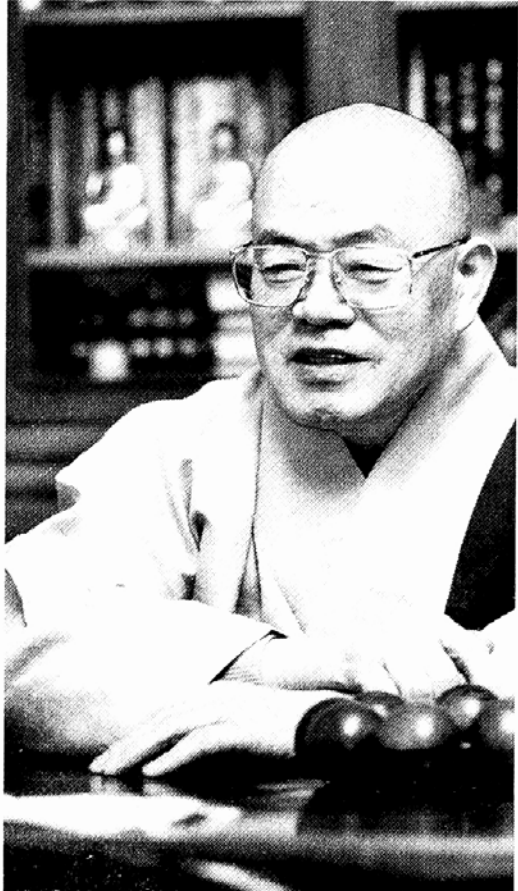
하동 쌍계사 조실

심진강 줄기를 따라 쌍계사로 가는 길목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코스모스와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 입고 있는 산중의 나뭇잎들을 바라보니 이전 원만한 가을임을 느낄 수 있었다. 법회에서 대중들을 만나는 것 외에는 주로 쌍계사와 연화도에서 수행에 정진하고 계시는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뵈고 법문을 청했다.

이름 모를 산새들의 음성공양은 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온 니그네를 반갑게 맞아 주는 듯했다. 고산 스님은 "항상 남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도 넓은 이량으로 포용해 줄 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돼야만 모든 중생들이 자연스럽게 지비를 베풀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불국토가 실현됩니다" 라고 강조하셨다.

“양심따라 행동하면 지계”

— 지난해 10월 조계종 총무원장직에서 물러나신 뒤 초청 법회 이외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시지 않아 스님의 근황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불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년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 총무원장직을 내놓고 연화도 섬에 내려 와서 홀로 수행을 하면서 보냅니다. 이따금씩 발에 나가 일도 하고 시간이 나면 바다로 산책과 명상을 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또 정신 수양을 위해 붓글씨도 씁니다. 이외의 시간에는 법회 초청을 받아 법문을 하러 들에 나가지요.
건강도 아침마다 108배와 참선을 해서 그런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총무원장 소임을 맡을 때나 바쁜 것은 마찬가지로만 한걸 마음이 편합니다. 중책을 훌훌 벗어버리고 그동안 소홀했던 공부와 정진을 하며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 34년 경남 울산 생
- 48년 법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
- 61년 고봉스님으로부터 전법계 받음
- 69~75년 조계사, 은해사, 쌍계사 주지 역임
- 78년 조계종 제5대 중앙종회의원
- 98년~99년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 현재 부산 연화도 연화사에 주석

— 스님께서는 총무원장 재임시절 '자비의 대중화'를 주요 실천 강령으로 정하고 중책을 파셨는데 '자비의 대중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 '자비의 대중화'는 무차화합의 원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무차화합이란 종교인은 종교인끼리, 정치인은 정치인끼리 장벽을 헐어버리고 화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더 나아가서는 산천초목과 같은 자연과도 대화와 화합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일 대중들이 힘이 약한 축생과 산천초목을 미약하다고 경시해서 죽이고 훼손시킨다면 결코 우주 만물의 진리를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무차화합은 우주 삼라만상 중 무엇이든지 차등을 두지 않고 화합된 하나의 개체로 보는 것입니다.
'자비의 대중화' 역시 무차화합의 연장선 상에서 출발합니다. '자비'에는 사랑과 슬픔이 모두 존재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동시에 슬퍼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자비'지요. 우선 사랑을 말하자면 내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어떻게 남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또 자신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슬퍼할 줄도 아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런 뜻을 확실히 안 뒤에야 비로소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알고 위로도 허 주는 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즐기워 해주고 슬픔을 사람으로 위로해 주는 행동의 실천이 바로 '자비의 대중화'입니다.
옛날 조사 스님들은 도량을 거닐다가 지렁이가 죽은 모습을 보고도 시자를 불러 영가를 위한 축원을 해줬을 정도로 사람과 똑같이 미물의 생명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비롯해 미물까지 일체 만물을 모두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비의 대중화'이지요.
개신교에서 중히 여기는 '밖에 사상'에는 사랑만이 포함돼 있는데, 자비는 사랑할 줄 알면서도 여기서 더 나아가 남의 슬픔까지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는 '밖에'보다 한차원 더 넓은 의미입니다.

— 요즘 세상이 날이 갈수록 험악해져 가고 있는데 스님 말씀대로 남의 슬픔까지 함께한다면 세상은 한층 따뜻해지고 밝아질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자비행'을 불자들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지요?
▲ 농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밭을 갈다가 본의 아니게 금뱀이 곡쟁이에 찍혀 죽은 것을 보면 측은지심을 가지고 좋은 인연으로 다시 환생하길 바라는 마음

만으로도 자비의 실천이지요. 집안에서 화초나 나무를 하나 키우더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가꾸어 나가는 것도 얼핏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다른 형태의 '자비행'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길거리를 가다가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면 이를 불쌍히 여겨 보시행을 행하는 것을 비롯해, 다른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러도 너그럽게 사람으로 대하면서 앞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용서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비행이지요. 자비행이란 의미를 너무 심오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자비를 행하겠다는 마음 자체지요.

— <능엄경>에 보면 '한 국토에 생(生)하는 자, 한나라에 태어나는 자 전체가 동업(同業) 중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똑같이 한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 동포들도 같은 나라에 태어난 동업중생인데도 경제적인 면에서 남한보다 뒤떨어진다고 해서 단지 험벗고 굶주린 사람들로만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남북문제가 발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북한 동포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좁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에서 동족끼리 총뿔리를 겨누고 38선이 그어져 남북이 가토막한 비극적 역사의 원인은 바로 대중들 사이에 마음의 담장이 높게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자리부터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남북 통일이 되겠습니까.
북한에는 산사태와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식량난이 심각해 내가 총무원장으로 있을때도 북한 동포들에게 옥수수나 쌀 등 식량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보다 못하니까 도와준다는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같은 핏줄을 지닌 한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함께 한이 돼 준다는 마음으로 여려이 되는 한 상하관계가 아닌 평등한 입장에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지요.

미국서부 대자연 명상여행 참가자 모집

대자연의 웅혼한 기운 속에서 원초적 생명력을 회복한다!

정신세계원에서 주최하는 <미국서부 대자연 명상여행>은 세상의 모든 번뇌와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누구나 경탄을 감할 수 없는 미국 서부의 웅장한 대자연 속에서 그 원초적 생명력과 하나되는 벅찬 기쁨과 깊은 평화감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시의 정신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인디언 거주지역 방문과 대도시에서의 뉴에이지 문화관광은 묘한 대비 속에서 21세기 정신문명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열어줄 것입니다. 삶과 대자연에 대한 깊은 성찰과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줄 이 명상여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요 방문지



- 그랜드 캐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20여년의 세월을 머금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 대계곡
- 파울 호수
- 브라이스 캐년
- 시온 캐년
- 콜로라도 강 라폴린의 윌라파이족 인디언 마을 방문, 인디언 의식 참관
- 로스 엔젤레스



- ▶ 세계 최대규모의 뉴에이지 박람회 Whole Life Expo 참관
 - ▶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에이지 서점 Bodhi Tree 방문
 - ▶ 서양에 오가의 진수를 전한 20세기 최고의 오가 수행자 파라미하사 오가나다 명상센터 SRF(Self Realization Fellowship) 견학 및 명상과 기도시간 동참
 - ▶ 중국 불교 사원 방문 등
- ... Whole Life Expo 참관(18일 중일): 21세기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선도하는 이 박람회에는 대체의학, 명상, 유희학, 초심현상, 채식영양 등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와 함께 관련 도서 및 음반, 물품, 제품 등이 전시 판매되며, 이 시대 인류의 최첨단 정신문명의 현주소를 집약해서 보여준다.

일 정	11월 17일(금)~ 23일(목) / 현지 6박 7일
참가비	210만원
모집인원	20명~ 30명(11월 22일까지 선착순 접수 마감)
특기사항	LA 왕복 아시아나 항공, 현지에서는 최신행 리무진 버스 이용 명상여행 전문 1급 가이드(정지현, 현지 거주 22년)의 안내
주 회	정신세계원(담당: 황갈매) 02-747-7033
주 관	정지현 테마여행사 (전화: 미국 510-368-0424) e-mail: jihyunusa@hotmail.com

- 최종 접수 마감일: 11월 22일(이전 및 비자 관계는 각자 해당)
- 참가자들을 위한 설명회: 11월 22일(목) 오후 5시 및 6시 / 정신세계원에서

** 「정신세계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명상·심신수련 전문 문화센터」이며, <정신세계>, <월간 정신세계>, <책방 정신세계>와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정신문화를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
정신세계원 (02)747-7033